

01 교회소식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해외에서 인터넷과 GCN방송으로 '2017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02 생명의 말씀

주님의 눈물

사랑의 결정체인 주님의 뜨거운 눈물은 모든 인생의 구원과 변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03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

“놀라운 영의 공간을 체험했어요”

각색 질병 치료는 물론 기사(奇事), 신기한 영적 체험으로 충만해진 네덜, 일본, 콩고민주공화국, 몽골, 인도, 태국 성도들.

04 간증

방송을 통한 권능의 역사!

GCN방송으로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25년 된 당뇨병과 합병증을 치료받는 등 놀라운 권능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805호 2017년 9월 1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가 넘쳐요!”

GCN방송, 인터넷으로 참여한 '2017 만민 하계수련회'



해외 곳곳에서 인터넷과 GCN방송을 통해 '2017 만민 하계수련회'에 함께한 많은 성도가 비록 현장에는 오지 못하였으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필리핀 세부만민교회 나옴 안셀로 집사(42세, 여)와 임마누엘 자프라 성도(27세, 남)는 GCN 생방송으로 수련회에 참석해 기도받은 뒤 시력이 좋아졌고, 오토바이 사고로 설 수조차 없었던 존 루이스 형제(15세, 남)는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마닐라만민교회 헬렌 이스마엘 성도(62세, 여)는 기도받은 후 생선 알레르기로 인한 발진과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이본네 오드후 소 성도(27세, 여)는 오랜 축농증으로 숨쉬기 힘들었는데 이 목사의 기도를 받은 뒤 치료받아 편하게 숨 쉴 수 있게 되었고, 제디다 완지루 자매(19세, 여)는 위 통증을 치료받고, 크리스탈 나부린도 성도(34세, 여)는 두통과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라프리 성도

(33세, 여)는 귀 뒤쪽 신경 손상으로 인한 수술 후유증을 치료받았다.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크리스핀 성도(63세, 남)는 무릎 통증으로 잘 걷지 못했는데, 녹화한 GCN방송 수련회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이 목사의 기도를 받은 즉시 치료받아 잘 걷게 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해외 곳곳에서 나타난 시공 초월한 권능의 역사

이러한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려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니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말씀하신다. 이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능히 치료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기이히 여기시며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치료되었다.

라트비아에서 화상예배 시스템으로

'2017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기도받은 선천성 농아인 마우리나 저르케인 성도(31세, 여)는 오른쪽 귀로 소리를 듣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싱가포르만민교회 환아이즈 성도(27세, 여)와 환아이젠 성도(33세, 여)는 각각 호흡 곤란과 무릎 통증을 치료받았다.

이 외에도 GCN방송을 통해 수련회에 참석한 네팔만민교회의 많은 성도가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았고, 해외 곳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3, 4면 참조).

치료는 물론, 영의 세계 체험을 통한 마음의 변화 등 신속한 응답과 축복

성령의 역사는 치료뿐 아니라 영의 세계 체험을 통한 마음의 변화로도 나타났다. 마음에 어둠과 공포, 두려움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말레이시아 우수웬 성도(22세, 여)는 GCN 생방송으로 수련회에 참석해 기도받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위로부터 힘이 주어졌다. 싱가포르만민교회 량밍은 성도(38세, 여)는 기도받을 때

어두운 그림자와 머릿속에 있는 검은 연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는데 이후로 부정적인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체험을 하였다. 몽골만민교회 터거스사이항 성도(49세, 남)는 기도받을 때 무엇인가 허리 쪽에서 올라오면서 목으로 나가는 느낌을 받은 후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주어져 신앙생활이 행복해졌다고 간증했다.

이뿐 아니라 성도들의 축복 소식도 이어져 행복을 더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라시디 집사(59세, 남)는 수련회 시 이재록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경찰기획부 부장으로 승진하는 응답을 받았다. 그는 “수년간 상사들의 방해로 승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오직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응답받기 바랍니다.”라고 고백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폭발적인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로, 치료는 물론 마음의 변화와 영육 간의 축복, 기쁨과 행복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2)

주님의 눈물

귀신들려 비참하게 살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조롱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고 인생들과 같이 되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이면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시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주시했지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베푸심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어찌하면 예수님을 없애랴를 모의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인생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보고 듣고 느끼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판단, 정죄하는 이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셨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눈물은 인생들의 구원을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늘 함께하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중보기도해 주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남겨질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살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올리셨지요. 이러한 눈물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큰 사랑의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5~37) 고백한 대로입니다. 그 결과 가롯 유다를 대신한 맛디아까지 모든 제자가 새 예루살렘 성의 열두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로 건전하게 하며, 절뚝발이로 걷게 하셨습니다. 소경을 보게 하고 귀신을 쫓아 내며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셨지요.

예수님께서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크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며 참되고 유일한 신이심을 믿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니다. 십자가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서 죄인들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어야 무수한 인생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이 잡히시던 날 밤, 아버지 하나님께 올린 기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4~5).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아름다운 눈물의 열매로 구원받고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수히 나왔고 세세토록 영광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사랑의 결정체요, 인생들을 위한 희생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대가로 맺힌 열매들입니다(시 126:5~6). 주 안에서 더욱 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와 영광만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인생들의 변화를 위한 눈물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가려 영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 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붙잡던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수군거렸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수군거리며 결국 예수님을 떠나지요.

자기 의와 틀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완고함을 책망하시기보다 비유를 들어 깨우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자신들의 의와 틀에 어긋난 점을 발견하면 따져 물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우쳐 어찌하든 변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쓰시며 여러 비유와 예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원수 마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인생들에게 찬송을 받기에 지극히 합당한 분임에도 헛된 신을 경배하고 있었지요.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지요(요 11:4). 결국 예수님께서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병어리로 말하게 하고 불구

첫째, 인생들의 구원을 위한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죄의 값으로 영원히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지옥이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음이 조금만 선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있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더 나아가 적대시했으며, 심지어 미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친속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기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믿고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서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시는데도 안식일에 일함으로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 리 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네팔에서도 현장에 있는 듯한 감동으로 치료와 축복이 넘쳤어요!



현지에서 GCN 생방송으로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네팔만민교회 성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

수련회 첫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전체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각종 통증과 질병이 단번에 치료되었다. 사누라마 성도(52세, 남)는 극심했던 두통이 사라지고 행복과 기쁨이 임했으며, 리타 브후젤 성도(28세, 여)는 다친 왼쪽 다리의 통증이 사라졌다. 람지 수날 형제(14세, 남)는 한 달 전부터 있었던 왼쪽 발목의 통증을 치료받아 이제 교회에 가는 것이 좋아졌고, 『십자가의 도』 책자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배우고 있다고 고백했다.

가슴 통증으로 숨 쉬고 걷는 것이 힘들었던 드보라 차우드데리 성도(29세, 여)는 기도받은 후 가슴 통증이 사라져 잘 걸을 뿐 아니라 고질적인 소화불량을 치료받았다. 한나 수날 성도(43세, 여)는 갑상선과 관절염으로 숨 쉬는 것이 어려웠고 때때로 전신에 통증이 있었지만 통

증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쥬티 마하르잔 집사(39세, 여)는 1년 동안 오른쪽 정강이와 발에 통증이 있어 걷기가 아주 어려웠지만 모든 통증이 사라져 잘 걷게 되었고, 아이테 신후 와이바 성도(84세, 남)는 6개월 전부터 다리가 부어오르고 입이 마르기 시작했는데 기도 받은 후 다리가 정상이 되고 입 안의 건조함이 사라져 증상이 되었다.

양쪽 눈의 시력이 나빠져 잘 안 보이고 15년 동안 코 막힘으로 힘들었던 남라타 보가티 성도(57세, 여)는 기도받은 후 시력이 좋아지고 코 막힘도 사라졌다.



이 외에 네하 타파 마갈 아동(10세, 여)은 왼쪽 귀의 통증과 귓볼 화상 통증을, 수딕샤 라이 자매(14세, 여)는 치통을, 칸치마야 롬바 성도(39세, 여)는 눈 통증을, 히라 케시 성도(49세, 여)는 입 안의 통증을 치료받았다.

아스미타 실왈 성도(33세, 여)는 말씀을 듣던 중,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신하며 더욱 믿음을 갖게 되었고, 남편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시타 센)는 큰 나무에서 떨어

어져 오른쪽 갈비뼈와 가슴뼈가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5일 만에 퇴원한 후 수련회에 참석해 통증이 급격히 줄고 편히 누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람 브드르 롬바 성도(47세, 남)는 아내의 강권에 못 이겨 캠프파이어에 참석했지만 큰 은혜가 임하니 성령 충만함 속에 이곳이 천국이라며 집에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말했다. 쿤티 마갈 성도(47세, 여)는 “제 삶은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니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라며 감사해했고, 님드하니 라이 성도(39세, 여)는 은사집회 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를 때 처음으로 마음 깊이 회개의 은혜가 임했다며 기뻐했다.

아만 쉬레스타 형제(19세, 남)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캠프파이어를 마음 다해 인도하는 목자를 보며 그 사랑에 감동되어 변화될 것을 다짐하며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찬만해졌다. 만민교회에 다니기 전,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던 사리타 로 성도(32세, 여)는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축복을 받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음식도 넉넉합니다. 수련회 시 기도받은 후에는 오래된 복통이 사라졌습니다.”라고 간증했다.



간증으로 영광 돌린 성도들 중 일부

해외 지교회도 동일하게 25~26도, 일본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지킴받아

지난 8월 6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이번 수련회는 25~26도가 될 것”이라고 말한 대로 수련회장인 무주 덕유산리조트 쟈핑파크에는 25~26도의 기온으로 조절되는 놀라운 기사(奇事)가 나타났는데, 해외 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영의 공간을 느낄 수 있었다.

GCN 생방송으로 함께한 몽골만민교회는 수련회 동안 25~26도였고, 인도 마두라이만민교회는 첫날 교육 전 소나기가 내려 32도였던 기온이 26도로, 셋째 날 캠프파이어를 시작할 때는 시원한 바람이 불더니 26도로 만들어졌다. 콩고민주공화국 킌사사만민교회(위 사진)는 녹화한 GCN방송 수련회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는데,

평소 30~33도였던 낮 기온이 캠프파이어 시 25도가 되는 등 곳곳에서 기온 조절의 역사를 체험했다.



한편, 일본 성도들은 수련회를 며칠 앞두고 ‘태풍 5호(노루)가 6일 규슈에 상륙, 7일 동경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뉴스를 듣고 본교회에 기도를 요청했다.

8월 6일 주일 대예배 시, 이재록 목사는 태풍의 영향에 지장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고, 이후 세력이 약해지면서 진행이 멈춰 형통하게 입국할 수 있었다. 이렇듯 도우시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며 47명의 주의 종과 성도들은 충만하게 보낼 수 있었다.



GCN 생방송으로 기도받은 후 치료되는 꿈을 꾸고 강건해졌어요!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마리아 집사(45세, 여)는 평소 온몸이 자주 아프고 뜨거웠으며, 2년 전부터는 무릎 관절염으로 만지기만 해도 아팠다. 교회에서 GCN 생방송으로 수련회에 참석한 그녀는 첫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을 때 누군가 세 차례 시원한 물을 자신의 몸에 뿌려주듯 시원한 기운이 몸과 가슴으로 들어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날 밤 신기한 꿈을 꾸었다.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사라지더니 아랫배에서 고양이, 배에서는 박쥐가 나간 것이다. 그리고 가슴에서 큰 호랑이가 나가면서 “네 피가 필요하다.”고 하니 옆에서 있던 한국 여인이 “주님의 피 값으로 이 성도를 구원하셨다.”고 하자 호랑

이가 화를 냈고, ‘목자의 양 떼’라고 하니 도망갔다. 이후 그녀는 놀랍게도 온몸의 통증이 사라지고 무릎 관절염이 치료되어 건강해졌다.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부처 자매(19세, 여)는 수련회 3주 전에 복통이 너무 심해 병원에 가 보니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된 상태였다. 급히 수술을 하였지만 수술 후 소독이 잘 되지 않아 그만 농양이 생기고 말았다.

GCN 생방송으로 수련회에 참석한 그녀는 기도를 받았고, 그날 밤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안수받는 꿈을 꾸 뒤 치료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병원 진단 결과, 과연 농양이 사라져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인도에서 기도받고 25년 된 당뇨병과 합병증을 치료받았습니다”

레베카 집사 (47세,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저는 3년 전, 고혈압과 당뇨합병증으로 혈당이 600까지 오르고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 입원하였습니다.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오른쪽 눈의 수정체가 녹아 없어지는 희귀병에 걸려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지요.

하지만 예배 시간(GCN방송 만민중앙교회 예배 실황)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으면서 한정희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의 중보기도 덕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7월, 수련회를 앞두고 온전

히 치료받기 위해 하루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뇨 수치가 오르고 3주간 구토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걸을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 저의 둘째 아들 제야쿠마가 올해 전반기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서 상을 받아 이희선 목사님(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의 초청으로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6일 주일 아침에 아들이 당회장님의 축복기도를 받았는데, 인도에

있는 세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날만 해도 힘이 없어 일어나 앉기도 어려웠는데, 그날 아침 갑자기 몸에 힘이 주어져 움직일 수 있었고 온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으로 이 기도가 시공을 초월해 세계 역사된 것이지요. 저는 기력을 되찾아 기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날 밤에는 만민뉴스(타밀어)를 발송하는 봉사도 하였습니다.

8월 7일 수련회 첫날, 인도에서 GCN 생

방송으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을 때는 무엇인가 제 배에서 쑥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뒤 몸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령 충만했으며 집에 돌아가 잠도 푹 잘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저는 이처럼 25년 된 당뇨병을 치료받아 새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며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땀 흘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다니엘 브렌 형제 (18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어릴 적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빠르게 걷고 뛰면 통증이 느껴져 마음껏 걷고 땀 흘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8월 7일, GCN 생방송으로 수련회에 참석한 이후 저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교육 말씀이 마쳐진 뒤 은사집회가 시작되면서 회개찬

양과 기도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면서도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일을 거듭했던 저의 교만과 이기적인 행동, 나쁜 감정들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후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제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다리를 통해 무엇인가 빠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 제 마음은 시원하고 가벼워졌지요.

다음 날, 수련회 참석을 위해 교회로 향하는 제 마음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날씨도 시원해 뛰고 싶은 마음이 들어 뛰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슴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 빠르게 걸어보았는데 역시나 통증

이 없었지요.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가슴 통증이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친구들과 마음껏 땀 흘릴 수 있으니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거듭해 짓던 제게도 은혜가 임해 주 안에서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5년 된 척추측만증이 순간에 치료되었어요”

조세핀 아도라블 자매 (26세, 필리핀 마닐라만민교회)



5년 전부터 저는 척추측만증으로 장시간 서있거나 앉아있을 때 허리 통증이 심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일할 때 근무시간 내내 앉아있으면 허리에 긴장감이 느껴져 툭툭이 허리를 주먹으로 치며 풀어보기도 하고 좌우로 돌리며 자세를 바꿔 완화해 보기도 하

였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었기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약을 먹거나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올해 만민 하계수련회가 사모되었지요. 드디어 8월 7일 수련회 첫날, GCN 생방송으로 성도들과 함께 참석하기 위해 교회

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 기쁘고 설렜지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교육 후 은사집회 시 환자기도를 해주실 때 저는 부드럽게 허리를 터치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뒤 신기하게도 허리에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

다. 더욱이 영어로 방송되는 수련회를 성도들에게 따갈로그어로 통역해 드리느라 4시간 이상을 꼬박 앉아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지요. 할렐루야!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기도받기 전, 척추측만증 정도가 5°로 보이고 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층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자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영천만민교회 경기도 영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2층)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탄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